

유아 영어발레 프로그램의 교육원리 및 방법론 분석

정 옥 희*

I. 서론	IV. 유아 영어발레의 실제에 대한 논의
II. 문화센터 무용프로그램과 줄리스 영어발레	V. 결론 참고문헌
III. 유아 영어발레 수업의 구조와 특성	Abstract

I. 서론

한국의 어린이들은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언제 어떻게 무용을 배우고 있는가? 예중고교 혹은 무용과 진학을 목표로 하는 무용전공생이 무용학원에서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으로 나누어진 예술춤을 익히는 것이 전통적인 무용입문경로였다면 최근에는 비전공자가 백화점 문화센터, 지자체 주민센터,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무용을 배우는 경로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약 24개월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에 이르는 영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들 프로그램이 확대됨에 따라 무용전공자들에게 새로운 취업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소위 “교양으로서의 무용교육”이라는 새로운 경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관심이 필요하다.

개별 기관이 제공하는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중에서도 발레는 단연 가장 인기 있는 장르로서 가장 많은 시수의 수업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

* 성균관대학교 강사, oki1004@hotmail.com

다.¹⁾ 현재 대표적인 유아발레 파견교육업체로는 줄리스 발레(Julie's Ballet)와 트윅클 발레(Twinkle Ballet)라는 양대 업체를 꼽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십 수개의 유아발레 파견교육업체들이 존재한다. 이들 업체들은 백화점 문화센터나 구민회관, 유치원 등에 전문강사를 파견하며, 유아교육시장, 영어교육시장, 그리고 발레의 대중화와 같은 코드와 맞물리며 독특한 산업으로 성장했다. 개인 사업자가 학원인가를 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전통적인 무용학원과는 달리 유아발레 파견교육 산업은 체계화되고 표준화된 프로그램, “원장 선생님”이 아닌 제 3의 주체를 거쳐 수업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익명성과 간접성, 그리고 개인 학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용이한 접근성 등으로 인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나아가 많은 무용전공생들에게 주요한 취업 기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발레의 주변을 확대하고 잠재적인 관객층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아발레 파견교육업체들의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히 영어발레 프로그램의 교육원리 및 방법론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서양에서 확립된 발레교수법의 체계 및 전통의 관점에서 볼 때 “유아에게 발레를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가르친다는 것”은 매우 이질적이고 독특한 현상이며, 다른 비영어권 국가를 살펴보더라도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왜냐하면 발레교육의 적절한 시작 시기는 10세 전후로 여겨질 뿐 아니라 모국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외국어로 발레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유아영어발레의 활성화가 정통발레교육에 따른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유아교육, 영어교육, 그리고 발레교육이 내포한 담론을 반영하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관점에서 그 맥락적 위치와 교육적 논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자면 유아발레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이어져왔고, 특히 최근 문화센터 중심으로 하는 유아발레시장의 활성화에 따

1) 서울 및 경기 소재 할인마트 문화센터와 지자체 운영센터에서 제공하는 무용프로그램을 분석한 이영아(2007)의 연구에 따르면 발레강좌는 총 419개, 한국무용강좌는 172개로 집계되었으며, 발레는 주로 영유아 대상, 한국무용은 노인대상으로 양분되는 특성을 띤다. 이영아(2007), 문화센터 무용 프로그램 발전 방안연구.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라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4년 구화진은 무용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유아발레수업을 “pre-ballet”로 규정하고 그 실태를 파악한 바 있는데, 그 이후의 연구들은 무용학원보다는 파견업체 및 파견강사를 연구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유아발레교육의 경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²⁾ 김주희(2012)는 유아 무용강사 파견업체의 현황을 분석하고 대표적인 두 업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무용전공자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정은수(2009)는 유아무용 파견교사의 교육환경을 탐색했으며, 이영아(2007)는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무용 프로그램의 발전방안을 연구한 바 있다. 또한 이은경(2008)은 조기 영어무용교육의 효과성 분석 및 활성화 연구를 통해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놀이와 신체활동을 통한 영어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동의하고 있으며, 유아영어무용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와 유아의 만족도가 높음을 보여주었다.³⁾

이처럼 꾸준히 이어지는 연구물들은, 그러나 그 접근방식과 특성에 있어 다소 획일적인 경향을 보인다. 대부분의 연구는 양적 분석을 통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무용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거나 현재의 상태가 아직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보다 활성화시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고객”이라 할 수 있는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접근도 눈에 띈다. 즉 선행연구들은 “유아발레교육은 유아의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 발달에 유의미한가?” (교육학적 접근) 혹은 “유아 발레교육에 대한 학부모 및 유아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어떻게 더욱 활성화시킬 것인가?” (경영학적 접근)의 질문을 던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유아무용교육에 대한 교육학적 및 경영학적 접근과는 달리 최근

-
- 2) 구화진(2002), Pre-ballet의 활성화를 위한 유아발레 교육현황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주희(2012), 무용강사 파견업체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은경(2008), 조기 영어무용교육의 효과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은수(2009), 유아무용 파견교사 교육환경 요인 탐색,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아(2007), 문화센터 무용 프로그램 발전방안연구,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영어발레에 대한 사회문화적 조명이 미흡할 뿐더러 영어발레의 수업시간이 실제로 어떤 원리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분석적이고 미시적 접근은 드물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발레는 발레-영어-창의놀이를 주요 요소로 삼는데, 각각의 가치 및 효과가 교육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입증된 것과는 별도로 이들이 영어발레에서 어떠한 원리와 비율로 결합되고 그 결과가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유아발레 파견교육업체들이 제공하는 유아영어발레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그 교육원리 및 방법론을 미시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 영어발레는 어떤 교육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그 교육학적 근거 및 사회적 맥락은 무엇인가?
- 영어발레의 수업은 시간, 공간, 언어, 움직임 측면에서 어떻게 구성되는가?
- 영어발레가 지향하는 교육적 목표는 무엇이며, 그 특성은 무엇인가?

유아무용 파견업체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모두 통계 및 계량적 측면에 대해 이미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특정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질적연구에 초점을 맞춘다. 연구대상으로는 현재 유아영어발레 프로그램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강사파견업체 중 한 곳을 선정하였다. 김주희(2012)에 따르면 유아무용 파견업체는 전국 26개로 집계되며,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업체 두 곳이 모두 영어발레를 특성화한 곳이다. 본 연구는 이 두 업체 중 인터뷰 및 수업참관 요청을 받아들인 “줄리스 발레(Julie’s Ballet)”의 영어발레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인터뷰 및 현장조사를 활용한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문화센터 중심의 무용교육 현장 및 발레전문 파견업체의 현황을 제시했으며, 연구대상 업체가 제공하는 교재, 브로슈어, 강사교육 텍스트, 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영어발레 프로그램의 지향점을 분석했다. 또한 줄리스 발레의 김경복 대표와 이분홍 부원장의 한 시간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김경복 대표와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한 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백화점 문화센터 및 파견업체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참관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했다. 현장조사는 동일 강사의 수업을 지

속적으로 참관하기보다는 각기 다른 강사의 수업을 제한적인 횟수로 참관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현장 강사들이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에 따라 강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며, 둘째는 어디서나 동일한 수업내용을 제공할 것을 지향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특성을 고려해 개별 강사의 교수능력보다는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수업전개양식을 파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2012년 가을부터 2013년 봄까지의 기간 중 ‘엄마랑아가랑 영어발레’ 수업 1회, 레벨 2와 레벨 3의 ‘영어발레’ 수업 2회, 그리고 ‘스토리발레’ 수업 1회를 참관했으며, 업체 발레놀이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영어발레,’ ‘미술발레,’ ‘짐발레’를 각 1회씩 참관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유아발레 파견교육업체들이 제공하는 유아영어 발레교육의 교육적 효과나 경제적 효과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논리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발레가 영어 및 발레 습득에 얼마만큼 효과 있는지의 판단은 유보하며, 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연구인만큼 유아영어 발레교육 전체에 대한 종합적 분석은 끌어낼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교양으로서의 발레교육에 큰 교두보가 되고 있는 영어발레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통계적 접근이 주를 이루는 연구 경향에 미시적이고도 질적인 접근을 더함으로써 보다 넓은 시각과 풍성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II. 문화센터 무용프로그램과 줄리스 영어발레

한국의 문화센터는 일본의 문화센터(culture center)를 모델로 하여 1981년에 만든 동아문화센터를 시작으로 교회, 유통업체, 출판사, 백화점 등으로 확대되면서 중요한 평생교육시설로 자리매김해왔다.⁴⁾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종류와 가짓수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강사 파견업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왜냐하면 문화센터는 각 분야의 강사를 직접 뽑을 능력과 여력이 안

4) 이영아(2007), p.7.

되기 때문에 개별 강사를 뽑기 보다는 어느 정도 검증된 파견업체와 계약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무용의 경우 1997-2004년 사이에 문화센터 및 유아교육 기관에 강사를 파견하는 파견교육업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무용 사교육의 트렌드 역시 변화하게 되었다. 90년대 중반까지 초중고교 무용전공생을 주 교육 대상으로 삼는 무용학원이 유아무용 수업을 부수적으로 운영해 왔다면 2000년대 이후 무용이 문화센터의 주요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음으로써 무용교육 프로그램이 양적으로 팽창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화센터 프로그램은 유아부터 노인까지 아우르지만 무용의 경우 나이에 따른 편중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무용프로그램 비율을 조사한 이영아(2007)의 연구에 따르면 발레가 한국무용의 3배 정도의 양적 우세를 과시하며, 발레는 유아연령에, 한국무용은 노인연령에 각각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즉 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무용교육의 주류는 발레이며, 이는 곧 유아발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국 문화센터에 강사를 파견하는 유아발레교육 업체 중 대표적인 곳은 트윈클 발레와 줄리스 발레이다. 트윈클 발레와 줄리스 발레의 대표인 안재연과 김경복은 동업으로 톱토티(Tiptoe)라는 영어발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가 곧 분리하여 각각 2004년과 2003년 파견교육업체를 창업하였는데, 따라서 두 업체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어발레와 스토리(동화)발레를 중심으로 특화시켰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많다. 또한 이들은 프로그램 개발, 지도자 교육, 교재 발간 등으로 체계화하여 오늘날의 대형 파견업체로 성장해왔다. 김주희(2012)에 따르면 현재 존재하는 26개의 유아무용 파견업체들 중 강사교육을 갖춘 업체는 7곳(27%), 체계적 조직도를 갖춘 곳은 5곳(19%)인 바, 이 두 업체는 업체의 운영형태, 조직도, 파견교육, 임금체계 및 근무조건이 가장 체계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영아(2007)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두 업체는 통계적으로도 전체 발레강좌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가 분석대상으로 삼는 줄리스 발레는 초기부터 문화센터 파견교육을 목적으로 '영어발레,' '스토리발레,' 체육과 결합한 '짐발레(gym ballet),' 16-25개월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베이비발레,' 그리고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나,

〈표 1〉 줄리스 발레의 프로그램 구분과 특성⁵⁾

구분	개별 프로그램	프로그램 특성
Pink Step Program	영어발레	영유아 어휘습득에 가장 중요한 시기(Critical Period)에 배우는 영어의 음운론(Phonology)과 발레의 동작들(스트레칭, 바른자세, 근력강화)을 함께 접목한 프로그램
	스토리발레	정통발레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스토리 중심으로 재미있게 배우는 프리미엄 클래식 프로그램
	베이비발레	발레와 리듬놀이를 함께 결합한 수업으로 창의성에 바탕을 둔 움직임 놀이 프로그램
	다이어트라인발레	발레동작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발레리나의 바다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된 성인 프로그램
Rainbow Step Program	발레 놀이학교	통합예술 교육중심으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는 4세, 5세 전문 놀이학교
	Kids 단과반	소수정예로 이루어지는 예술교육 중심의 체계적인 레벨별 교육
	전공반/성인반	전공반: 예중, 예고, 대학을 목표로 발레리나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스페셜 체험수업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 취미반

최근 무용학원 및 놀이학교로 그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Pink-Rainbow 프로그램의 체제로 재구성하였다(표 1). 문화센터 수업을 기준으로 하는 Pink Step 프로그램의 경우 모든 수업은 주1회 50분을 기준으로 짜여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제외하고는 크게 보호자와 함께 진행하는 엄마랑 아가랑 수업(24-48개월)과 유아(4-초등학교 저학년)로 나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부, 마케팅부, 판매사업부, 센터사업부로 조직되어 있으며, 교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강사관리, 발레용품 판매 등을 하고 있다. 일반적인 백화점 문화센터 운영방식에 따라 프로그램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하기로 운영되며, 자체 제작한 교재(레벨 1-2, 레벨 3) 및 음악 CD를 재료비에 포함하여 판매한다. 그 외 수업에 쓰이는 소품 역시 자체 제작하여 강사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자체 아카데미를 통해 교육받은 강사는 거주지 인근의 문화센터 및 지자체 센터 등으로 파견되어 수업한다.

5) 줄리스 발레 홈페이지. <www.julies.co.kr, 2013-9-10>

줄리스 영어발레는 각종 브로슈어 및 교재를 통해 “영유아 어휘습득에 가장 중요한 시기(Critical Period)에 배우는 영어의 음운론(Phonology)과 발레의 동작들(스트레칭, 바른자세, 근력강화)을 함께 접목한 프로그램”이라는 교육원리를 제시해왔다. 즉 영유아가 영어를 배우는 데 효과적인 시기이며, 영어로 발레를 배우는 것은 영어습득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논리는 이은경(2008)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 영유아 부모들의 일반적 기대와 대부분 일치한다. 영유아 부모들은 취학 전 아동의 조기영어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며(78.5%), 그 방법론으로는 영어와 관련된 노래와 소품을 활용한 놀이 활동을 통한 방법(45.9%)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유아 영어무용교육은 신나는 영어노래(45.1%) 및 신체활동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영어경험(37.1%)을 한다는 점에서 영어교육에 효과적이라고 인식된다. 또한 줄리스 발레의 교육원리는 발레를 “스트레칭, 바른 자세, 근력강화”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은경의 설문조사에서 학부모들이 유아기 무용교육의 효과로서 성장발달 및 자세교정 (43.7%)을 최우선으로 꼽는다는 점과도 일치한다. 이렇게 볼 때 줄리스 발레의 교육원리는 영유아의 부모들의 관점 및 기대와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 곧 교육적 효과를 증명하거나 담론적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은 아니다. 타 교과를 영어로 가르치는 것에 대한 찬성 못지않게 반대의 견해도 존재하며, 단순한 학부모나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넘어 그 효과성을 유의미하게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강후동·강혜영(2009)이 종합했듯 영어몰입교육의 효과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며, 정의적 효과 및 성취도 면에서 모두 입증되었다고 보기엔 엄격하게 통제된 실험을 통한 연구가 미흡하다.⁶⁾ 따라서 본 장에서는 줄리스 발레가 제시한 세 가지 주요 키워드, 즉 Critical Period, 음운론, 그리고 발레의 동작들을 중심으로 줄리스 영어발레의 교육원리의 이론적 토대를 고찰하고자 한다.

6) 강후동·강혜영(2009), 영어·미술 통합수업을 위한 내용중심 초등영어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Primary English Education* 15(1), pp.59-86.

1. “결정적 시기에 배우는 영어음운론”:영어교육 시기와 방법론

영어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줄리스 발레의 교육원리는 조기교육의 특성을 뚜렷이 드러낸다. 현행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을 초등학교 3학년에 시작하는데 비해 줄리스 발레의 영어발레는 ‘엄마랑 아가랑’ 방식의 수업처럼 24개월 전후의 영아단계부터 개설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나아가 언어를 배우는 데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는 것은 바로 영어 조기교육의 핵심적 논리이다.

영어조기교육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론적 토대는 줄리스 발레가 사용한 결정적 시기 이론(Critical Period Theory: CPT)과 언어습득장치 이론(Language Acquisition Device Theory: LAD)이다.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가 제시한 언어습득장치는 스스로 언어의 규칙을 발견하며 유한한 문장을 듣고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언어습득장치는 1-6세에 가장 활발하게 형성되고 12-13세에 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유아기가 언어습득에 있어 중요하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또한 신경학자 와일더 펜필드(Wilder Penfield)가 제시한 결정적 시기 이론 역시 사춘기 이전 시기가 언어습득에 결정적인 시기이며 원어인 발음을 가장 완벽하게 흉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모국어건 외국어건 어릴수록 언어습득에 유리하다는 점은 학문적, 경험적으로 대체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마송희(2008)가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정리했듯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환경에 대한 증명일 뿐 우리나라와 같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의 환경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있는지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⁷⁾ 특히 조기 영어교육의 주된 논리로 작용하는 LAD나 CPT의 경우 EFL 환경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로 자리잡음으로써 유아 영어교육이 영어에 대한 흥미유발 등의 단기적이고 정의적인 효과 이상은 거두기 힘들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단순히 보다 어린 나이

7) 마송희(2008), 유아교육기관 영어교육의 타당성과 바람직한 실천 방안, 『열린유아교육연구』 13(4), pp.221-245.

에 영어에 노출되는 것이 영어습득에 도움 될 것이라는 논리는 학부모의 만족감은 높이지언정 학문적인 입증은 아직 부족하다.

한편 줄리스 발레는 음운론(Phonology)을 영어교육의 방법론적 논리로 제시하고 있다. 언어는 소리와 뜻으로 구성되며 각각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음성학과 음운론이 존재한다. 음성학이 사람의 말소리를 음향의 차원에서 물리적으로 탐구한다면 음운론은 말소리가 언어에서 어떻게 조직되어 사용되는지 의미의 차원에서 탐구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음운론은 음운체계를 수립하고 음운변동 현상을 설명하는 학문이며, “불”-“뿔”-“풀”의 구분처럼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변별적 최소단위인 음소를 인식하고 변화하는 방식을 탐구한다.⁸⁾ 이렇게 볼 때 줄리스 발레에서 이루어지는 영어교육을 음운론이라 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다. 원어민 발음으로 녹음된 영어동요와 챗트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영어의 억양과 발음을 익힐 수 있으나 강사가 특별히 이를 강조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영어단어 습득에 있어 음소의 구분에 따른 인식 및 비교(예를 들어, pool-fool)를 다루지 않을 뿐 아니라 학생들이 영어를 실제로 발음할 기회가 적다는 점에서 음운론적 토대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영어체육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신반응교수법(Total Physical Response: TPR)이 줄리스 발레의 교육원리로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된다. 영어-예체능 통합교육 중에서도 특히 체육 및 무용이 각광받는 것은 신체활동 및 반복학습을 통해 영어를 체득할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애셔(James Asher)가 1975년에 제안한 전신반응교수법은 모국어 습득환경에서처럼 교사가 제한된 어휘로 구성된 명령형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면 학생이 신체행동을 통해 영어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⁹⁾ 말하기보다는 듣고 반응하기에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보다 줄

8) 다음 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17a2517a,2013-9-01>>

9) 남궁은미(2006), 영어와 예체능(체육)교과 통합운영을 통한 듣기·말하기 능력 신장, 『초등영어교육』, pp.24-31.

여줄 수 있는 반면, 추상적인 어휘 습득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초급 이상의 영어를 익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김경복 대표는 반복이 많은 발레수업의 특성과 외국어 습득 방식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영어발레를 착안했다고 진술하는 바,¹⁰⁾ 신체부위, 움직임,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신체행동으로 표현하는 발레수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음운론보다는 전신반응교수법이 줄리스 발레의 교육원리에 더욱 부합한다.

2. “영어와 발레 동작들의 접목”: 내용중심 통합영어교육의 논리

이론적으로 볼 때 영어가 교수언어로 작동하는 줄리스 발레의 영어발레는 영어몰입교육 혹은 내용중심 통합영어교육의 특성을 띤다. 영어몰입교육(English Immersion Education)이란 “영어가 아닌 과목까지 영어로 가르치는 것”을 뜻한다. 즉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과목을 영어로 가르침으로써 교과 내용 뿐 아니라 영어활용 능력을 신장시킨다는 논리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시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영어몰입교육을 제안했으나 현실성 적고 사교육시장을 확대한다는 비판에 따라 즉시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고 이를 기민하게 받아들인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한국의 영어교육에 있어 큰 학문적, 사회적 영향을 끼쳤다.

이와 비슷한 개념인 내용중심 통합영어교육(Content-Based Learning, or Content and Language Integrated Learning in English)은 영어를 교육의 목적이 아닌 수단, 즉 교수언어로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유의미한 의사소통 시간을 확대시킴으로써 영어교육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부족한 영어수업 시수와 영어노출기간 부족을 타개하고자 한다. 둘 다 영어교과 외의 교과를 영어로 배우는 방법론인데 영어와 통합하는 과목에 대한 선호도조사에서 교사(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순)와 학생(체육, 음악, 미술, 과학, 수학)이 대동소이하게 인지과목보

10) 김경복 줄리스 발레 대표와의 인터뷰, 2013. 2.25. 10AM, 대표자 자택 근처 카페.

다는 예체능과목과의 통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¹¹⁾ 실제 영어 사교육 시장 역시 영어발레를 비롯하여 영어 태권도 및 영어체육(태글리쉬, 호아스쿨, 탐스스포츠), 영어미술(키즈아트, 아토리, 아트키도), 영어음악(노부영 영어야 놀자), 그리고 영어 벨리댄스(KFdance, 라테스, 줄리아 벨리댄스) 등 수 십여 개의 영어-예체능 통합교육 프랜차이즈 업체들로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

줄리스 발레를 비롯한 영어-예체능 교육업체들은 서로 다른 이름이지만 실질적으로 큰 대동소이한 방법론, 즉 영어 자체를 수업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유익한 맥락에서 교육수단으로 삼는 영어몰입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공유한다. 미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체육을 배우는 과정에서, 혹은 무용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영어몰입교육은 “학습자가 배우고자 하는 교과의 학습내용에 대한 지식을 축적할 뿐 아니라 목표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¹²⁾고 여겨지며, 또한 목표어를 매개로 하여 자연스럽게 유익한 맥락 속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학습을 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 몰입교육이 성공한 사례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와 같이 목표어가 제2 언어나 공용어로 사용되어 학습의 필요성과 사용기회가 높은 조건이기에,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홍콩이나 헝가리 등의 국가에선 그 효과가 미비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내용언어통합학습에 기반을 둔 영어교육의 적합성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영어몰입교육이 영어성적에도, 교과성적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기도 했다.¹³⁾ 즉, ESL로서의 영어몰입교육의 효과는 증명되었으나, EFL로서의 영어몰입교육의 효과는 아직 논란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학부모의 기대와 만족도를 바탕으로 영어발레교육의 효과를 주장하

11) 김경희(2000), 영어-미술 통합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적용효과에 대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선호(2004), 영어 이머전 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Foreign Language Education* 11(4), pp.259-280.

12) 민찬규(2008), 영어 몰입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영어교과교육』 7(1), pp.111-112.

13) 송경원(2009.7.6), 서울시교육청 보고서 “영어 몰입 교육 효과 없다”,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5153803, 2013-8-10>.

는 것을 넘어 보다 분석적이고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Ⅲ. 유아 영어발레 수업의 구조와 특성 분석

줄리스 발레의 주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영어발레는 학습자의 연령에 따라 레벨 1(엄마랑 아가랑; 24-48개월), 레벨 2(4-5세), 레벨 3(6세-초등학생)으로 구분한다. 이처럼 발레 실력보다는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은 영유아 시기에는 나이 차이에 따른 인지능력의 차이가 한 두 학기 수업으로 축적된 발레 실력의 차이보다 유의미한 조건임을 암시한다.

다수의 수업참관 및 강사교재를 종합해볼 때 영어발레 수업의 기본적 진행구조는 <표 2>와 같으며, 레벨이나 프로그램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을 정도로 정형화 되어 있다. 50분 기준의 수업은 매 수업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매트 운동과 창의놀이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다.

Hello와 Goodbye는 프로그램 구분과 상관없이 반복되는 일련의 구조물로 노래, 챗트, 율동, 그리고 구조화된 질문과 대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Hello의 경우 “Hello, Happy to see you, How are you, everyone, I am fine, Thank

<표 2> 줄리스 영어발레 수업의 구조와 요소

수업구조	발레 및 신체적 요소	영어적 요소	비고
Hello(2분)		구조화된 챗트 (Hello; Happy to see you; How are you, everyone; I am fine, thank you.)	매트 위
Warm up(8분)	간단한 스트레칭 운동 (개구리자세, 다리 옆으로 벌려 스트레칭 등) “줄리스 체조” 시퀀스 (목, 허리 및 전신 체조)	신체/방향/동작 명령문 영 어로 숫자세기 “줄리스 체조”에 사용된 챗트 (You can look up and down... We are best friends.)	매트 위

〈표 2〉 계속

수업구조	발레 및 신체적 요소	영어적 요소	비고
매트운동 및 발레테크닉(15분)	발목운동 (Flex-point - circle) 발레 팔 자세 (basic port de bras) 바른 자세 만들기 (기린목 만들기 등퍼기 어깨내리기) 스트레칭 및 근력운동 발레 발동작 (tendu, Relevé, passé, jump)	신체/방향/동작 명령문 (Toes up; Let's make circles; Stretch your back; Open your legs) 비유적 표현(Can you stand like a tree? You are small like a peanut. The crocodiles are coming!)	매트 위
창의놀이(20분)	소품을 이용하여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 - 구체적인 사물 (바람개비, 낙엽, 꽃밭, 과일바구니, 피자) - 생물 (말, 나비, 개구리, 거미, 토끼, 펭귄) - 상황 (농구, 방울 울리기, 계절)	창의 놀이 소재의 주요 특성이고 동작을 끌어내어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예) 과일 바구니 Guess what I brought today. What's this? his is an apple. Wow! They look delicious, here is a large basket. Fill the basket with these fruits. Great job.	매트 위 및 공간활용
Good bye(5분)	손잡고 원 만들기 간단한 발레 포드 브라 및 발동작으로 마무리 인사 및 도장찍기		매트 위 및 원대형

you.” 등의 문장으로 구성된 챌트와 인사로 시작한다.

Warm up 에서는 매트 위에서 개구리 자세와 같은 간단한 스트레칭과 별 만들기 (“Big star → small star → Jump)와 같이 전신을 활용하는 율동을 반복한 후 “줄리스 체조”를 수행한다. 수업의 앞뒤에 반복하는 “줄리스 체조”는 영어가사

가 포함된 노래에 맞춰 기본적인 준비운동 (어깨 돌리기, 엉덩이 흔들기, 한발 들고 발란스, 목 스트레칭)과 율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노래가사가 직접적으로 동작을 지시하기 때문에(“You can look side-to-side, You can look up and down.”) 교사가 특별히 보충설명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챌트와 동요를 주로 활용한 매트 운동 및 테크닉 수업에선 자체 제작한 음악CD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음악은 영어지시어가 삽입되어 직접적인 신체활동을 지시하거나 (Toes up, toes down, make a circle, open your leg, let’s count 1 to 10) 비유법을 사용하여 지시(Can you stand like a tree, You’re small like a peanut), 혹은 상황 설정을 통한 동작 유도(Look over there! The crocodiles are coming! I am so scared. Let’s run away.)한다. 발레 테크닉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매트 운동이나 창의놀이의 일부로 수행되는 경향이 있다. 매트 위에는 1번/3번 포지션, 두 발을 사용한 플르베(relevé), 파세(passé), 탄두(tendu), 플리에(plié), 그리고 기본 포드 브라 등 부분적인 손 발 동작을 수행하며, 이후 창의놀이에서는 놀이의 일부로서 발끝으로 걷기(tip toe walking), 스키핑(skipping), 아라베스크 정도의 테크닉이 추가된다.

창의놀이는 학기마다 다른 테마를 가지며(봄: rain, baby angel, 여름: color, mermaid, 가을: happy birthday, cat, 겨울: swan, snow fairy), 계절적 특성(꽃, 비, 낙엽, 눈 등), 동식물 및 사물(다람쥐, 악어, 가위, 바람개비, 공 등), 그리고 유아에게 친숙한 소재(생일, 이빨 닦기, 해적놀이, 피자, 로켓트, 미용실 등) 등 매 수업마다 새로운 소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매 학기 12주이기에 1년을 수강하면 48개의 소재를 접하는 셈이다. 종이, 펠트지, 리본 등으로 자체 제작한 소품을 활용하고 마찬가지로 자체 제작한 음악을 사용하는데, 새로운 노래와 주제를 배우고 주 동작을 끌어내서 발레동작과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예를 들어 꽃을 주제로 한 경우 씨앗에서 싹이 나고 싹이 피는 과정을 설명들은 후 씨앗에서 싹트기, 빗물 내리기, 그리고 싹이 피는 과정을 손동작과 간단한 발레 팔동작(en avant), 발동작 (passé)과 결합하여 간단한 동작 구로 만든다. 음악에 맞추어 동작이 이루어지지만 음악의 가사를 충분히 이해하

거나 동작구를 외울 시간이 없으므로 대부분 선생님의 시범을 따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Goodbye의 경우 다 같이 손잡고 큰 원-작은 원 만들기를 하고 간단한 발레 포드 브라(port de bras; en bar- en avant - en haut - á la seconde) 및 발동작을 복습한 후 선생님께 인사하고 도장 받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유아발레 수업 틀에 20분 이상의 창의놀이를 삽입하기 위해 줄리스 영어발레의 수업은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통제된다. Hello에서Goodbye에 이르기까지의 수업의 흐름은 매우 정형화된 특성을 보인다. 구체적인 동작을 지시하는 영어챗트 CD를 활용한 활동이 Warm up 및 매트운동의 대부분을 구성하기에 시간적 지체가 방지된다. 또한 학생들의 공간활용 역시 매우 통제되어 불필요한 이동과 혼란을 방지한다. 대부분의 수업활동은 일정 간격으로 놓인 매트 위에서 이루어지며, 창의 놀이에 가서야 비로소 이동 움직임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한 명씩 목표지점을 향해 이동하거나 대형을 이루어 진행된다. 또한 수업시간의 대부분을 매트 위 고정공간에서 보내는 학생들은 매트를 치운 후에도 거울 앞에 한 줄로 앉아 한명씩 곧장 스티커가 붙여진 지점으로 이동하는 등 효율적으로 통제된다. 실제로 일반적인 유아대상 수업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무질서한 순간은 매트를 치우고 교재를 가져오는 순간 외에는 거의 존재하

〈표 3〉 일반 유아발레와 줄리스 영어발레의 수업운영 비교도¹⁴⁾

수업 단계	일반 유아발레 (권소미, 2003)	줄리스 영어발레
Warm up	유연성 및 근력 운동 강사마다 독특한 용어 사용 매시간 같은 순서 및 음악 사용	유연성 및 근력 운동 자체 프로그램에서 정한 용어 사용
Barre	짧거나 생략되는 경향 발 동작 위주 (tendu, plié)	생략되어 매트 위에서 진행 발 동작 위주
Center	스텝 및 점프의 반복 개별연습 소작품을 통한 흥미 증진 및 발전	이동동작은 창의놀이의 일부로 수행됨 반복 및 앙체느망을 통한 발전 적음

14) 일반 유아발레의 특성은 권소미(2003)의 연구를 정리했다. 권소미(2003), 유아발레 지도자의 교수행동과 수업내용에 관한 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60-61.

지 않는다.

발레의 측면에서 봤을 때 줄리스 영어발레는 일반 유아발레 수업과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 기초적인 발자세, 팔자세, 간단한 도약, 이동, 균형잡기 동작들이 주요 발레 콘텐츠를 이루며, 나머지는 매트 위에서 이루어지는 스트레칭 및 근력운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교수된다. 또한 지향하는 발레교육의 목표가 신체적 측면(“스트레칭, 바른자세, 근력강화”)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유아의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발레를 통해 얻는 효과와도 거의 일치한다. 이처럼 전체적인 틀과 구성은 일반 유아발레수업과 비슷하지만 그 집중도와 시간배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표 3〉에서 보듯이 유아발레 지도자의 교수행동과 수업내용을 분석한 권소미(2003)의 연구를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Warm-up - Barre - Center 로 이어지는 수업구조에서 Warm-up과 Barre는 유사하고 Center는 구별된다. 유아발레 수업의 Warm-up에선 유연성과 근력 위주의 동작을 교사가 개발한 독특한 용어를 통해 매 시간 같은 순서와 음악으로 진행한다던 영어발레 역시 본사가 정한 동작을 주어진 영어챗트 노래에 맞추어 진행한다. 또한 유아발레 수업에서 Barre의 비중이 낮은 경향이 있다면 영어발레에선 Barre 가 아예 생략되었다. 대신 Barre에서 배우는 기본 발동작들은 매트 위에서 간단하게 수행한다. 영어발레가 일반 유아발레와 차이나는 지점은 Center이다. 유아발레에서 이동스텝 및 점프 동작을 반복 개별연습하는 것에 비해 영어발레에선 창의놀이의 일부로 포함된다. 예를 들어 스티커를 붙이러 가기 위해 꺾로핑 스텝으로 가는 방식이다. 또한 유아발레에서 반복 개별연습한 동작을 바탕으로 간단한 앙체느망을 구성함으로써 새로운 흥미와 도전의식을 유발한다면 영어발레에선 앙체느망이 생략된다.

한편 언어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영어와 발레를 결합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줄리스 영어발레 교육방법론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소재의 영어단어에서 구체적인 움직임 단서를 끌어내어 발레적 동작과 결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가을학기 1&2 레벨 매트 운동에 포함된 다람쥐 동작의 경우(그림 1) 다람쥐의 철자(Squirrel)와 이니셜(S)을 배우고 다람쥐의 주요특성에서 동작



〈그림 1〉 줄리스 영어발레 매트운동 (다람쥐)

〈표 4〉 창의놀이 구성방식 분석

Who is it? It's a squirrel. ↓ What is the squirrel doing? He is gathering some acorns. ↓ I'm a squirrel. I really like to eat acorns. ↓ Where are my acorns? I'm gathering as many acorns as I can.	인지적 요소 (개념, 영어 발음, 단어 및 알파벳) ↓ 동작적 요소 (gathering) ↓ 표현적 상황 만들기 (3인칭에서 1인칭으로 전환) ↓ 운동적 요소I (표현 동작: 살피기) 운동적 요소II (발레 동작: 다리 펴고 가슴 당기)
---	---

(gathering)을 끌어낸 후 이를 표현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두 가지 운동적 요소(눈 위에 손대고 주변 살피기, 두 다리를 앞으로 뻗은 후 도토리를 줍는 팔동작을 하며 앞으로 가슴 당기)를 끌어낸다(표 4). 이러한 구성방식은 매트 운동 뿐 아니라 창의놀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꽃밭을 주제로 한 창의놀이에서는 꽃밭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소개하고, 꽃 소품을 들고 꽃밭을 만들러 가는 과정에서 발끝으로 걷기(tiptoeing)나 크게 뛰기(galloping) 스텝을 활용한다. 이처럼 구체적 사물의 특성에서 움직임 단서를 끌어내거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에 발레 동작을 삽입하는 방식을 통해 교과내용이 구성된다.

IV. 유아 영어발레의 실제에 대한 논의

“결정적 시기에 접하는 영어음운론과 발레의 동작들의 접목”이라는 줄리스 영어발레의 교육원리는 이론적으로 영어, 발레, 창의놀이 모두 익히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지향한다. 줄리스 발레의 홍보전단을 살펴보자면 영어발레 수업의 효과를 5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 발레교육의 효과 3단계(올바른 자세와 균형있는 신체-)사회성 발달-)발레 테크닉 향상) 에서 창의놀이(창의성 발달)과 영어교육의 효과(영어의 음운과 문장 만들기, 단어습득)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어도 배우고 발레도 배우고 나아가 창의놀이도 배울 수 있다는 영어발레의 이상은 생각만큼 쉽게 달성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어로 교과내용을 가르칠 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EFL의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교육내용이 모순되고 소모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문섭과 현석분(2008)이 주장하듯 영어 몰입교육은 이해가능한 입력이 힘들어 다른 교과와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쉽다.¹⁵⁾ 즉 모국어로 배울 경우 빠르고, 섬세하고, 깊이 있는 교육이 가능하데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제한적 능력을 가진 영어로 교수하는 것은 이만큼의 교과 전달이 불가능하다. 결국 “영어발레”는 영어교육과 발레교육의 총합이 아니며, 영어발레에선 일반적인 발레수업에서 가능한 성취도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 모두 한국어가 모국어인 상황에서 영어로 발레수업을 하는 것은 아무리 자연스러운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여도 교수언어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교과내용과 교육목표가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발레와 영어와 창의력까지 꾀하는 유아 영어발레의 실제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실증적 실험을 통해 영어발레의 효과를 검증하기를 꾀하지는 않는다. 다만 앞에서 분석한 수업의 구성요소들의 결합비중 및 방식을 내용중심 통합 영어교육의 이론에 따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내용중심 통합교육은 외국어교육과 내용교육이 결합하는 방식과 초점에 따라

15) 한문섭·현석분(2008), 한국에서의 몰입교육: 공교육의 몰입교육 적용을 위한 교사와 학생의 준비, 『초등영어교육』 14(3), pp.5-27.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영어와 모국어의 비율에 따라 완전몰입부터 완전분리까지 다양한 단계로 나누어지며, 수업의 초점이 내용과 외국어 중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구분된다. Curtain과 Pesola(1994)는 5단계, Mohan(1986)은 3단계, 그리고 Met(1999)는 6단계로 나누되 연속선상의 관계로 보았다. 이 중 보다 널리 알려진 Met의 모델(표 5)을 보면 내용중심(Content-driven)과 언어중심(Language-driven)의 양 축을 기준으로 완전몰입-부분몰입-보호과정(Sheltered)-부가모형(Adjunct)-주제중심언어(Theme-based)-언어연습을 위한 내용을 빈번히 사용하는 수업(Language Classes with Frequent Use of Content for Practice)으로 나누어진다. 이는 수업의 목표, 강사의 전문성 등에 따라 구분되며, 내용 중심으로 갈수록 언어몰입도가 높아지고 언어중심으로 갈수록 분리되는 경향을 띤다.

줄리스 발레의 경우 위의 모델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는다. 발레와 언어 둘 중에 어디에 중점을 두었는지 명시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사고

〈표 5〉 Myriam Met의 내용중심 통합언어교육 모델¹⁶⁾

Content-driven			Language-driven		
Total Immersion	Partial Immersion	Sheltered	Adjunct	Theme-based	Language Classes with Frequent Use of Content for Practice
내용을 목표언어로 가르친다 내용습득이 우선이고 언어습득은 이차적이다. 내용주제는 교과목표나 커리큘럼에 따라 정한다. 교사가 언어목표를 설정한다. 학생은 내용습득에 따라 평가 받는다			목표언어를 배우기 위해 내용을 활용한다. 언어습득이 우선이고 내용습득은 이차적이다. 언어주제는 언어교과의 목표나 커리큘럼에 따라 설정한다. 학생은 언어실력에 따라 평가받는다.		

16) Myriam Met(1999), *Content-based instruction: Defining terms, making decisions*, NFLC Reports (Washington, DC: The National Foreign Language Center), p.7. 보호과정(Sheltered)은 언어적으로 보다 섬세하게 지도하는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고, 부가모형(Adjunct)은 언어와 교과 모두를 목표로 언어강사와 교과강사가 공동으로 지도하는 것이며, 주제중심 모형(Theme-based)은 언어강사가 학생에게 적절한 주제를 선택하여 지도하는 것이다.

육의 특성상 학생평가 역시 생략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리스 영어 발레는 “발레교육 전문 파견기관”이라는 맥락적 요소 및 강사의 전문성과 같은 수업 외적 요건에선 내용중심의 축에 더 가깝다. 왜냐하면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의 무용관련학과 졸업생을 강사의 자격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영어강사”라기 보다는 “전문발레강사”임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족한 언어실력은 강사교육 및 교재와 커리큘럼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수업의 주축이 되는 매트 운동 및 창의놀이는 CD를 통해 배포되는 영어동요 및 챗트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구체적인 동작지시를 포함하거나 수업 소재를 표현하는 가사를 담고 있다. 교사가 사용하는 교수언어의 경우 강사교육교재를 통해 상황(출석체크, 매트 운동, 교재수업, 시범, 이동스텝, 소품 나눠주기, 창의놀이, 칭찬 및 지적, 마무리 등)에 따라 필요한 영어를 120문장 정도로 압축하여 제시되었다. 매트운동 및 창의놀이가 매우 구조화된 흐름에 따라 진행되기에 교사는 한정된 문장구조에 신체, 방향, 움직임, 사물 명칭 등의 어휘를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큰 어려움 없이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줄리스 영어발레는 발레수업이라는 유의미한 환경 속에서 영어가 자연스럽게 다각적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이때 개별 강사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보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제를 활용하였다.

문제는 줄리스 영어발레를 내용중심이라 규정하기에는 그 교과내용이 발레와 창의놀이를 분산되면서 교과적 성취도가 낮다는 점이다. 우선 줄리스 영어발레의 수업 시간에서 발레가 차지하는 시간적, 교과적 비중이 매우 낮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일반 유아발레 수업에 비해 Barre가 생략되고 Center는 짧아졌다. 줄리스 발레의 대표는 학생 통제의 어려움 및 시간제한 때문에 Barre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권소미(2003)가 지적하듯 유아발레에서 barre가 짧아지거나 아예 생략되는 경향은 신체통제가 어려운 유아발레수업에 적절하지 않으며, 높은 레벨에서도 Barre가 전혀 없다는 점은 발레 테크닉의 의미 있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¹⁷⁾ 또한 기초적인 팔동작과 발동작을 고급 스텝으로 발전하거나 앙쉴느만으로 구성하는 식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매트 운동 및 창의놀이의 일부로 삼입하는

수준에 그친다. 아직 발레 테크닉을 제대로 구사하기 어려운 유아의 발달적 단계를 고려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업시간이 축적되면 동작 구사수준이 발전하고 보다 길고 복잡한 동작구를 외우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연령이나 경험에 따른 분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발레수업이 되기 어렵다.

발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요소는 바로 창의놀이이다. 김경복 대표가 “영어발레는 실제로는 창의놀이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수업내용의 초점은 사실상 발레보다 창의놀이에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²⁰⁾ 유아무용교육에서 창의놀이가 강조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 유아가 수행할 수 있는 발레 테크닉이 제한되었다는 신체발달적 특성과 함께 유아에게는 보다 통합적이고 놀이중심적인 교육이 적합하다는 교육학적 근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기제로 운영되는 줄리스 발레의 커리큘럼은 매우 구조화된 수업운영의 틀 속에서 발레 커리큘럼의 흐름보다는 학기별로 창의놀이 12가지를 하나씩 수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다.

그런데 창의놀이가 소재중심으로 짜인 점은 문제가 된다. 농구 흥내내기, 도토리 줍기, 바람개비 날리기 등의 소재를 매 수업 시 새롭게 다루느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창의놀이가 수업의 주 콘텐츠가 되면서 발레수업에서 발레가 주변화되는 것 뿐 아니라 소재중심의 창의놀이 커리큘럼으로 인하여 수업의 본질마저 흐려진다. 즉 내용중심 영어통합교육의 논리에서 볼 때 영어발레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 발레라는 타 교과와 결합한 것인데 발레가 다시금 창의놀이와 결합하면서 또 다른 교과로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물론 발레든 창의놀이이든 “유의미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한다는 내용중심 통합교육의 목표에는 부합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사실상 발레의 테두리를 많이 벗어난다는 모순이 생긴다.

이처럼 내용중심 통합영어교육의 교과내용이라 할 수 있는 발레와 창의놀이의 비중이 불균형을 이룸으로써 영어가 수단이 아닌 목표로 탈바꿈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영어, 발레, 창의놀이를 결합한 줄리스 영어발레 프로그램은 “영

20) 권소미(2003), pp.61-62.

21) 인터뷰, 2013.2.25. 10AM. 대표자 자택 근처 카페

어를 통한 발레”보다는 “영어를 위한 발레”의 특성을 띤다. 창의놀이를 통해 유의미한 환경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영어를 위한 발레”의 목표를 성취하고 있는 반면, “영어를 통한 발레”가 되기에는 발레의 시간적, 교과적 비중이 너무 적고 유의미한 발전단계가 제시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사실상 발레의 테두리를 많이 벗어나기 때문이다. 결국 영어발레는 외국어교육과 발레교육 중 어느 곳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외양은 비슷해도 전혀 다른 교육이 될 수 있으며, 줄리스 영어발레의 경우 발레교육이 목표라고 하기엔 상당히 제한적인 성취를 보인다.

한편 줄리스 발레의 광고 및 브로슈어에는 “영어발레” 앞에 “원어민도 좋아하는”, 혹은 “미국 아이들도 좋아하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영어몰입교육의 측면에서 보다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국 유아가 영어(모국어)로 배우는 발레는 한국 유아가 한국어(모국어)로 발레를 배우는 것에 상응하는 것이지 EFL환경에서 영어로 발레를 배우는 것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똑같은 영어발레 수업을 미국 유아가 좋아하는 것(유아발레)과 한국 유아가 좋아하는 것(영어발레)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이 설득력을 가진다면 이는 한국사회에서 “원어민”이 지니는 문화권력적 측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해외 미술교육 프로그램인 키즈아트(KidzArt)나 미국 시카고 미대와 공동기획한 Art Play-Ground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아트키도(Art Kiddo)처럼 해외 예술교육 커리큘럼을 그대로 들여와 영어-예체능 통합교육으로 가르치는 사교육 업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서 인정받은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권위를 가져오지만 한국적 상황에서는 영어교육의 수단으로 탈바꿈한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맥락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미국 아이들도 좋아하는 영어발레”의 함의는 결국 한국사회에서 영어발레가 각광받는 요인이 “영어를 통한 발레”보다는 “영어를 위한 발레”에 있음을 드러내는데, 이는 영어권 국가에 대한 문화사대적 태도 뿐 아니라 교육의 매체가 되어야 할 영어가 교과 위에서 군림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즉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영어강의의 열풍이 대학을 전문지식과 습득의 장이 아닌

거대한 영어학원으로 만든다는 비판을 받는 것처럼, 유아교육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영어-예체능 교육은 예술을 영어교육의 수단으로 삼는데서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형교회가 개설한 어린이 영어예배가 또 다른 영어 사교육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현상처럼 영어발레의 활성화 역시 그 목적과 방법론에 대한 보다 비판적인 검토가 요구된다.²²⁾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유아영어발레 파견교육업체인 줄리스 발레를 중심으로 유아 영어발레의 교육원리와 방법론을 분석하였다. “결정적 시기에 배우는 영어음운론과 발레의 자세들”이라는 줄리스 영어발레의 교육원리의 이론적 토대를 살펴보면, 영어몰입교육과 조기교육의 근거가 되는 결정적 시기 이론은 한국과 같은 EFL 환경에서의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고려해야 하며, 영어음운론 보다는 반복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영어를 배운다는 전신반응학습모형이 더 설득력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현장조사를 통한 수업 분석에선 정형화된 수업구조, 제한된 학생들의 활동, 그리고 특정 영어단어에서 움직임 단서를 끌어내고 이를 동작화하여 발레 테크닉과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영어발레 수업에서 영어, 발레, 창의놀이가 결합되는 방식과 초점을 분석하였다. 내용중심 통합교육의 유형에 따르면 언어(영어)와 내용(발레) 중 어느 곳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언어중심-내용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강사의 특성 및 맥락과 같은 외적 요인으로는 내용중심이라 할 수 있으나 실제 수업에서는 정작 교과내용의 비중이 약하고 분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발레가 수업의 목표라기보다는 수단으로 작용하는바 “영어를 위한 발레”의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었다.

22) 박가영(2012-12-31), 대형교회 어린이 영어예배...조기 영어 교육 현장으로 변질,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866717>, 2012-9-10>

본 연구는 특정 업체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논리적이고 미시적 차원에서 접근했으나 보다 거시적 차원인 사회경제적 측면에 대해선 다루지 않았다. 전국의 수많은 문화센터와 교육기관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는 프랜차이즈 교육업체의 현황, 전통적인 학원사업의 변모 및 대응방식, 그리고 교육노동자로서의 파견강사의 노동환경과 활동방식에 대한 후속논의가 가능하며 또한 필요하다.

영유아 대상으로 한 영어와 예체능 통합교육의 효과성이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현장에서 특히 성행한다는 것은 한국의 교육적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사교육을 통해 채우려는 욕구에 따라 영유아 사교육은 대부분 놀이중심 통합교육의 형태를 띤다. 즉 영어에 노출될 기회가 적은 EFL의 사회적 조건에 비해 영어에 대한 부담이 과도한 상황에서 주입식 영어교육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면서 공교육보다 기민하게 반응하는 사교육에선 예체능, 놀이, 체험을 통한 교육법이 부각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영어-예체능 통합교육이 영어교육을 위해 소비되고 수단화되는 예체능교육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예술교육가들의 비판적 고려가 요청된다. 줄리스 발레를 비롯한 다양한 유아발레 파견업체들의 성장은 무용계에 잠재적인 시장을 확장시키고 취업문을 넓혔다는 긍정적 효과를 자아냈다. 그러나 영어발레에서 발레가 거부감 없는 영어교육을 위한 당의정(糖衣錠) 역할에 머문다면 이러한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무용교육의 가치와 파장력을 증폭시킬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Myriam Met(1999). *Content-based instruction: Defining terms, making decisions.*

NFLC Reports, Washington, DC: The National Foreign Language Center.

강후동, 강혜영(2009). 영어·미술 통합수업을 위한 내용중심 초등영어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Primary English Education* 15(1): 59-86.

권소미(2003). 유아발레지도자의 교수행동과 수업내용에 관한 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화진(2002). Pre-ballet의 활성화를 위한 유아발레 교육현황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2000). 영어-미술 통합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적용효과에 대한 연구. 경인
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주희(2012). 무용강사 파견업체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궁은미(2006). 영어와 예체능(체육)교과 통합운영을 통한 듣기·말하기 능력
신장. 『초등영어교육』, 21: 24-31.
- 마송희(2008). 유아교육기관 영어교육의 타당성과 바람직한 실천 방안. 『열린유
아교육연구』 13(4): 221-245.
- 민찬규(2008). 영어 몰입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영어교과교육』 7(1): 109-123.
- 박선호(2004). 영어 이머전 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Foreign
Language Education* 11(4): 259-280.
- 이영아(2007). 문화센터 무용 프로그램 발전 방안연구.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2008). 초기 영어무용교육의 효과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숙명여자대학
교 석사학위 논문.
- 정은수(2009). 유아무용 파견교사 교육환경 요인 탐색.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문섭·현석분(2008). 한국에서의 몰입교육: 공교육의 몰입교육 적용을 위한 교
사와 학생의 준비. 『초등영어교육』 14(3): 5-27.
- 박가영(2012-12-31). 대형교회 어린이 영어예배...초기 영어 교육 현장으로 변
질,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866717>,
2012-9-10>
- 송경원(2009.7.6). 서울시교육청 보고서 “영어 몰입 교육 효과 없다”,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
5153803, 2013-8-10>.



줄리스 발레 홈페이지. <www.julies.co.kr, 2013-9-10>

다음 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17a2517a,2013-9-01>>

김경복 줄리스 발레 대표와의 인터뷰, 2013. 2.25. 10AM. 대표자 자택 근처 카페.
줄리스 영어발레 가을학기 교재 (레벨 1&2).

논문투고일	2013년	9월	18일
심사일		10월	20일
심사완료일		10월	28일



Abstract**The Analysis of Pre-school English Ballet Program's Pedagogical Rationale and Methodology**

Ok Hee Jeong
Sungkyunkwan Univ. Lecturer

It is estimated that 26 ballet staffing firms for pre-schoolers have popped up between 1997-2004 in Korea and sent their lecturers to various culture centers, leading to the boom of ballet as a liberal education. Intrigued by the popularity of its subgenre "English ballet", this study analyzes the pedagogical rationale and methodology of pre-school English ballet programs in Korea.

The research subject is "Julie's English Ballet", one of the most popular English ballet franchise staffing firms in Korea. Julie's English ballet provides standardized classes all over country that are structured with supplementary textbooks, CDs, props, and teacher's guide. The company advertises that through English ballet program, students can "learn English phonology and ballet movements during the critical period," which reveals its pedagogical rationales. First, by mentioning "critical period," it advocates the Critical Period Theory, suggested by Wilder Panfield, that the younger, the better one acquires a language. Second, the company suggests phonology as its methodological rationale, while the study argues that total Physical Response theory better fits the characteristics of English ballet program that emphasizes repeatability of both ballet and English-learning. Third, by combining English and ballet, English ballet is geared toward English Immersion Education, or Content-Based Learning in English.

Conducting an ethnographic research on Julie's English ballet, the research analyzed its curricular structure, characteristics, and pedagogical methodologies. According to the Content-Based Instruction model by Myriam Met (1999), Julie's English Ballet seems content-driven rather than language-driven, in that dance-majored instructors teach it as a part of ballet programs. However, as English ballet's curricular contents is divided into ballet and creative movement, the

curricular imbalance between them results in the weakening of its pedagogical goals. Ballet is curtailed and marginalized while creative movement is emphasized. As lots of time and energy are spent on topic-based activities of creative movement, the whole class is transformed to be “English through Ballet (language-driven)” rather than “English for Ballet (content-driven).”

eaching English AND ballet at the same time inevitably accompanies sacrifice of the educational effect. English ballet offers a learning context that is meaningful and interactive enough to help students learn English more easily and naturally. However, it has a danger to provide insufficient ballet experience to be considered as a meaningful ballet class, which is marginalized by English and creative movement. In that sense, while praising its achievement and potential to invigorate job market for dancers and cultivate ballet audiences, the dance field should also beware of the possibility that ballet in English ballet only remains as the sugarcoat of the pressure for English in the Korean society.

keywords: Julie’s Ballet(줄리스 발레), English Ballet for Pre-schoolers(영유아 영어 발레), English Immersion Education(영어몰입교육), Content-Based Learning(내용중심 영어통합교육), Total Physical Response(전신반응학습모형)